

KGCCI & KGCCI DEinternational

German companies in Korea

Since its foundation in 1981, KGCCI has been promoting the bilateral relation between Germany and Korea. The commercial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steadily increased so that the number of member companies increased to about 500 and the size of investments by German companies in Korea accumulated to more than 535 Million USD as of 2015.

German companies have a longstanding tradition with CSR, long before this term was even coined. The idea of the "honorable merchant", a concept which has been one leading principles of German companies and the German Chamber organization for centuries, emphasized that merchants should create value to their communities and act according to an honorable set of codes. In modern Korea, these ideas are still emphasized and practiced by German companies. The CSR activities of German companies are numerous and diverse in their forms. From the promotion of cultural exchange or the recon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to the support of underprivileged children or single parent households, German companies have shown that they are active and engaged in their local communities and its people.

1981년 설립 이래로 한독상공회의소는 독일과 한국의 양국 관계를 증진하는데 힘쓰고 있다. 양국간의 상업적, 경제적인 교류는 꾸준히 증대되어 한독상공회의소의 회원사는 약 500여개로 증가하였고, 독일기업의 국내 투자의 규모 또한 2015년 현재 5억 3500만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독일 기업들은 용어가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관련하여 오래된 관례를 가지고 있다. "존경받는 상인"이라는 개념은 지난 몇 세기 동안 독일 기업과상공회의소들의 주요 원칙이었다. 이 개념은 상인은 지역사회에 가치를 창출해야 하며 명예로운 상이의 원칙에 따라 행동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독일기업들에 의해 여전히 중요시되고 행해지고 있다. 독일기업의 CSR 활동은 그 형태가 수없이 많고 다양하다. 문화적 교류의 촉진, 문화유산의 재건부터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가정의 지원까지 독일기업들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Dasom Study Room



Dasom Study Room is a charity project run by studen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ch aims to help children from underprivileged families with tutoring and mentoring on their academic path. In December 2016, KGCCI arranged a charity raffle and collected 2.6 Mio KRW, which equals the annual budget of the project and donated the money to Dasom. In return, some of the children which are supported by Dasom visited KGCCI's office in 2017. They were introduced to the chamber's work and got some interesting information about Germany. KGCCI hopes that someday these children will turn into future leaders of Korea.



다솜공부방은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학업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지도와 멘토링을 제공해주는 프로젝트이다. 지난 2016년 12월 한독상공회의소는 자선행사를 통해 260만원상의 기금을 모아 이를 다솜에 기부하였다. 이 기금은 다솜공부방의 1년 예산과 동일한 금액이다.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다솜의 후원을 받는 학생들은 한독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상공회의소가 하는 일과 독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한독상공회의소는 이 학생들이 한국을 이끌 미래의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The Beautiful Foundation

Since 2004, the Beautiful Foundation has helped single mothers opening their own businesses through its "Hope Store" project. Through various courses, women learn about basic business practices and how to run a successful store. KGCCI donated a portion of the proceeds of the 2015/2016 CSR report in order to help the foundation to open its 300th store in 2016.

아름다운 재단은 미혼모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가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한독상공회의소는 2015/16 CSR 리포트의 수익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였다.



Deutsche Schule Seoul International



In 2016, the Deutsche Schule Seoul International was celebrating its 40th anniversary. At its celebration, KGCCI and its first Secretary General, Mr. Florian Schuffner, donated 50 Mio KRW to honor the school on being part of a cultural exchange of German culture in Korea.

서울독일학교는 서울에 위치한 독일계 외국인학교이며, 이 학교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독일 졸업장을 받게 된다. 지난 2016년 서울독일학교는 개교 40주년을 기념하였다. 한독상공회의소와 초대 소장인 플로리안 슈프너 씨는 서울독일학교가 한국에서 독일 문화의 교류에 이바지 한 공을 높이 사 개교 40주년을 기념하여 5천만원을 기부하였다.

Project "Ausbildung"

On March 6th,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KGCCI, BMW Group Korea and Mercedes-Benz Korea gathered for the signing of a MoU to support the launch of the Ausbildung program in Korea. The global promotion of the German "Ausbildung" program is one of the key projects which was initiated and supported by the German Chambers Abroad(AHK). While "Ausbildung" is a general term for dual vocational and on-the-job training system in Germany, it will be first introduced in Korea in the form of an automobile maintenance program. Participating students are to officially sign a labor contract with the dealerships of the two German automakers, which entails the provision of a stable salary, a high quality working environment. The Korean curriculum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German Ausbildung curriculum and adapted to the Korean circumstances. This was done in cooperation with field instructors who have completed a German trainer workshop, professors from Doowon Technical University and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and a German Ausbildungs counselor.

다가오는 2017년 9월부터 시작하는 한독상공회의소의 "아우스빌둥" 프로젝트는 한국 학생들을 '아우토 메트로니카 (Auto-Mechatroniker)'로서 양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 직업교육을 한국에 도입한 것인데, 학생들은 산업과 관련된 특정 직업학교에서 수업을 참여함과 동시에 기업으로부터 수련을 받는다. 참가자들은 총 3년 간의 도제 교육을 받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BMW 코리아와 벤츠 코리아로부터 훈련을 받으며 두원공과대학 혹은 여주대학교를 다니게 된다. 프로그램 시행 첫 해에는 인증을 획득한 44명의 트레이너들이 최대 90명의 학생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 정부가 후원하며 졸업생은 A레벨 자격증(A-level certificate)과 더불어 독일 이중 직업 교육(German Dual Vocational Education in Foreign Countries) 인증을 받게 된다. 한국은 유럽 외 국가 중에 학생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얻는 첫 번째 국가이다.

